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태양·일본 R&B 가수

듀엣곡 내년 싱글 출시

솔로 가수로도 활동 중인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태양(사진)이 일본의 R&B 가수 아오야마 테루마와 함께 부른 듀엣곡이 내년 싱글로 출시된다.

태양과 아오야마 테루마가 하모니를 이룬 '폴인 러브(Fall in Love)'는 내년 1월27일 출시되며 다운로드 서비스도 개시된다.

아오야마 테루마는 지난해 히트곡 '소바니 이루네(결에 있을게)'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최신 노래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가수다.

듀엣곡 '폴인 러브'는 태양의 정열과 아오야마 테루마의 애절한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뤄 사랑의 설렘을 표현한 러브송이다.



비 “아직 갈 길 멀다”

이달말 세번째 미국 단독 공연

“올해는 인생 배운 해...인간냄새 나는 드라마 찍고 싶다”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에게 올 한해는 나름 값진 시기였다. 월드투어 미국 공연 무산에 따른 법적 소송을 끝냈고, 2년 만에 아시아 투어를 재개했으며, 이달 말에는 3년 만에 세 번째 미국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직접 프로듀싱한 아이돌 그룹 엠블랙도 데뷔시켰으며, 11월 할리우드 첫 주연작인 영화 '닌자 어쌔신'은 개봉과 더불어 미국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르며 배우로서의 입지도 다졌다. 미국 CNN이 그를 특집으로 조명했고, 그를 담은 디스커버리채널 다큐멘터리는 '아시아 TV 어워드'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매년 씬 없이 화제를 만들어내는 그는 올해가 인생을 배운 해라고 했다. 진정성 있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수렴하는 안목을 갖게 된 해, '비'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강하게 믿었던 자신에 대한 기준선이 철저히 깨진 해였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악화하기도 하고, 큰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저는 10년 주기로 변화가 생기네요. 1989년 집이 풍족한 삶에서 부족한 삶으로 바뀌었고, 1999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며, 2009년에는 소송이란 약재도 있었지만, 연말에는 영화 개봉 등 좋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인생은 정말 마라톤 같아요.”

비는 2007년 월드투어 미국 공연 무산과 관련한 2년간의 분쟁을 지난 6월 끝냈다. 그렇기에 8월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지를 돈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Legend of Rainism)' 투어는 감회가 남달랐을 터.

“무대의 소중함을 늘 느꼈죠. 하지만 무대란, 준비되면 오르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할 때면 무대 설치 등 지를 위해 뛰는 분들의 고생도 헤아리게 됐죠. 무대에 한번 서는 게 요즘은 더없이 고맙고 행복해요. 미국 공연도 벌써 설레고요.”

그는 “엠블랙이 내가 직접 프로듀싱하는 마지막 음반일 것”이라며 “내가 가수와 배우로서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달았다. 박진영 형처럼 사업가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기에 연예인으로 나의 최대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닌자 어쌔신'이 개봉한 뒤, 2002년 1집을 막 끝냈을 때처럼 신인의 기분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비는 이 영화 개봉 후 파라마운트 등 할리우드에서 '좋은 제안'들이 쏟아져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고민이 된다고 했다.

“주연 욕심보다 다음 단계로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블록버스터에 조연급이라도 출연하고 싶어요. 아직은 배역의 한계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벗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비는 할리우드 영화와 함께 드라마 출연에도 욕심을 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드라마를 찍고 싶어요. 영화를 촬영하면 7~8개월이 소요돼 다시 1년 공백이 생기니 아시

로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지를 돈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Legend of Rainism)' 투어는 감회가 남달랐을 터.

“무대의 소중함을 늘 느꼈죠. 하지만 무대란, 준비되면 오르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할 때면 무대 설치 등 지를 위해 뛰는 분들의 고생도 헤아리게 됐죠. 무대에 한번 서는 게 요즘은 더없이 고맙고 행복해요. 미국 공연도 벌써 설레고요.”

그는 “엠블랙이 내가 직접 프로듀싱하는 마지막 음반일 것”이라며 “내가 가수와 배우로서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달았다. 박진영 형처럼 사업가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기에 연예인으로 나의 최대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닌자 어쌔신'이 개봉한 뒤, 2002년 1집을 막 끝냈을 때처럼 신인의 기분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비는 이 영화 개봉 후 파라마운트 등 할리우드에서 '좋은 제안'들이 쏟아져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고민이 된다고 했다.

“주연 욕심보다 다음 단계로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블록버스터에 조연급이라도 출연하고 싶어요. 아직은 배역의 한계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벗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비는 할리우드 영화와 함께 드라마 출연에도 욕심을 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드라마를 찍고 싶어요. 영화를 촬영하면 7~8개월이 소요돼 다시 1년 공백이 생기니 아시



아권 팬들은 영화보다 드라마에 출연하길 원하죠. 한·일·한·중 합작 드라마라도 좋으니 인간 냄새 나는 드라마를 꼭 할 겁니다.”

“이제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그에게 연예계 국가대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 연예지 할리우드리포터 인터뷰를 하는데, 남북문제, 최근 세상을 뜬 한국의 유명 모델에 대해 물더군요. 그들은 질 인터뷰하며 정치 분야까지 한국을 공부하고 조사했어요. 저로 인해 그들이 한국을 알아가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인이니 잘못하면 한국, 나아가 아시아가 욕 먹을 수 있잖아요. 어깨에 그러한 책임감은 이미 있어요.”

또 가난과 어머니의 죽음 등 역경을 딛고 일어난 성공 스토리로 화제가 됐기에 훗날 자신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보라는 제안도 했다.

그는 “그것보다 내 몸이 녹슬기 전 춤 영화를 꼭 찍고 싶다”며 “지금 연기와 춤을 갈고 닦으니 연젠가 휴머니즘이 있는 춤 영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천민 백정, 조선 최고 의사 되다

천민 중의 천민 백정이 조선 최고의 의사가 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SBS가 내년 1월4일 오후 10시 첫선을 보이는 36부작 메디컬 사극 '제중원'(극본 이기원, 연출 홍창욱)의 내용이다.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을 배경으로 백정 소년개가 제중원의 의사 환경이 되기까지의 극적인 성공담을 그린다.

홍창욱 PD는 “이 드라마에 인간의 의지를 담고 싶다. 백정이 훌륭한 양의가 되고, 종인의 딸이 남녀 차별을 뚫고 여의사가 되고, 양반이 계급을 던지고 개화기 훌륭한 의사가 되는, 그 세 명의 의지를 구한말의 풍경과 함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중원'은 의학드라마 '하얀거탑'을 성공시킨

이기원 작가가 집필한다.

백정역을 맡은 박용우는 “작품을 먼저 읽고 감동받아 감독님께 먼저 연락드리고 찾아갔다. 다행히 날 좋게보셔서 이렇게 캐스팅이 이뤄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고생한 기억밖에 없다. 그런데 고생할 것이 눈에 선해 마음에 들었다. 고생을 하면 그만큼 드라마가 극적이라는 의미이고, 그것이 진실되면 감동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혜진은 역관의 딸 유석란 역을 맡았다. 역관의 딸로 태어나 남들보다 신문물에 눈을 일찍 뜬 개화기 시대 신여성으로, 처음에 제중원에 봉역관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인과 의사가 되는 인물이다.

메디컬 사극 '제중원'

내년 1월4일 첫 방영



박용우·한혜진·연정훈(왼쪽부터)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심장박동 10만 회 이상 뛰는 심장
누구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신약제제
5분만에 심장소통을 위한 HeartPlus ACD-1000E
심장 심혈관 질환 치료제

광주비학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신약제제
편의추진까지 사용 시 효능신속히 나타냄

